

# 청년의 삶을 위협하는 新 범죄와의 전쟁

마약에 취해버린 대한민국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노정태

# 개인적 체험

- 2025년 3월 20일 오전 7시 45분.
- 자전거로 서강대교를 건너 여의도로 향하고 있던 (구) 청년논객.
- 내 앞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허공을 향해 고함을 지름.
- 옛날에는 그냥 술이 좀 취했다, 아니면 어디가 아프다 라고 생각.
- 요즘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마약인가?' 임
-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는 사람을 보면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 예전에는 누가 상태 안 좋아보이면 잘 도와주던 성격인 나도, 요즘은 걸음걸이가 이상하면 피하게 됨

# "음주운전인 줄 알았는데...잡고 보니 차량서 마약 발견

요즘 너무 자주 보이는 뉴스

'음주운전인 줄 알았는데 마약'

'단순 주취자인 줄 알았는데 마약'

최신뉴스

## 음주운전인 줄 알았는데...잡고 보니 차량서 마약 발견

송고 2024-04-24 10:42



김상연 기자  
+ 구독



경찰 출동

[연합뉴스TV 캡처]

(부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차량에 마약을 보관한 채 도심을 돌아다니던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을 위반 혐의로 50대 A씨와 30대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11시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서 차량 내부에 마약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실제로 마약이 만연해진 대한민국

전국 하수에서 4년 연속 불법 마약류인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다. 필로폰 사용 추정량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코카인 사용 추정량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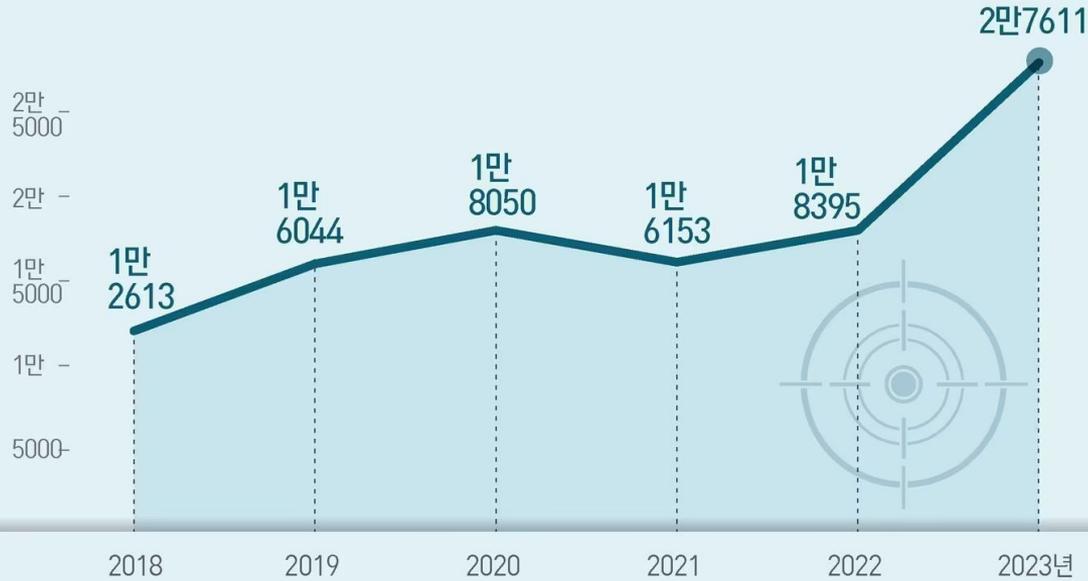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하수 역학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하수 채집 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조사 기법이다.

조사 결과, 필로폰은 4년 연속으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다. 다만 지난해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추정량은 14.40mg으로, 조사가 시작된 2020년 24.16mg보다는 줄었다.

그런데 코카인의 경우,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이 2020년 0.37mg에서 2022년 0.40mg으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1.43mg으로 3배 이상 늘었고, 그동안 서울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 세종에서도 처음으로 검출됐다.

"4년 연속 전국 하수도에서 마약 성분 나왔다...코카인 검출량 3배 ↑", 조선비즈, 2024년 5월 29일.

##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자료: 대검찰청

news1

## 10대 마약사범 추이



연말뉴스

자료: 대검찰청

김민지기자 20230410

YONHAPNEWS

# 마약은 어떻게 공동체를 파괴하는가?

- 마약을 생산, 판매, 유통하는 불법 사업자(aka 범죄자)들이 기승을 부림
- 그들이 사회 인프라를 악용하되 세금은 내지 않고 더 많은 중독자 양산
- 정상적인 대화와 설득이 통하지 않는 마약 중독자 만연
- 시민들끼리 서로 믿고 돕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없게 함
- '카페에 지갑과 핸드폰으로 자리를 맡아놓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게 됨
- '저, 괜찮으세요? 잠깐 앉아서 쉬었다가 가세요' 같은 말을 할 수 없음.
- 아직 한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자칫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마약은 수많은 범죄의 linchpin.
- 마약을 근절해야 한다는 단호한 사회적 합의 필요.
- 마약 수사를 위한 범죄 예방 검거 체계 강화
- 검수완박이라는 이상한 '개혁'을 원점 검토하고 복귀해야.
-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 시스템 정비
- 마약이라는 값싼 쾌락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확립

감사합니다